

대순사상의 인문정신과 인류평안의 이념

잔스창(詹石窗)*

중국사천대학 · 교수

- I. 서언
- II. ‘인문’ 전통의 연원
- III. 강성상제의 공사와 대순진리회 수도의 인문정신
- IV. 대순진리회 종지의 인문 정신
- V. 결어

I. 서언

최근 몇 년 간, 한국 대순진리회의 국제적 지명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교단 외부에서도 대순진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란 ‘대순’의 정신을 핵심 강령으로 하는 종교 신앙 조직이다. ‘대순’이란 말은 『상서·태세하』(尙書·泰誓下)에서 볼 수 있으며, 책의 내용 중에 “무오일(戊午日)의 다음날이 되자 주 무왕(周 武王)이 육사(六師)를 크게 대순(大巡)하고 감찰하였으며, 많은 장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말이 있다. 후에 적지 않은 역사적 문헌에서 ‘대순’이라는 단어는 영

* 1954년생, 철학박사, 현 중국 사천대학 노자연구원 원장, 세계도가연의회(世界道家聯誼會) 부회장.

수들이 그 휘하 부대의 활동을 감독하고 감찰하는 것을 의미했다.

‘대순진리회’의 『전경』에서 ‘대순’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께서 천하를 순시하셨음을 나타내는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이에 근거한 대순진리로 신도들을 인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경』의 제1장에는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¹⁾ 라는 내용이 있다. 『전경』에 따른다면 강성상제께서 ‘천하 대순’하신 것은 삼계가 혼란하고 도의 근본이 사라진 가운데 신성·불·보살이 삼계의 죄악 및 겁난(劫難)을 하소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에 강림하신 강성상제의 천하 대순은 한편으로는 인계와 신명계의 실제 상황을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어떻게 ‘겁난’을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겁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을 반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반성의 과정은 곧 수도의 과정이기도 하고 교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상술(上述)한 교리로 본다면, 대순진리에 기반한 대순사상은 인간 행위와 정신에 대한 사상적 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곧 몸과 마음을 닦고(修身養性),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治世安民) 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신양성과 치세안민의 행위는 일정한 우주 공간의 질서 아래에서 형성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우주의 질서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강성상제께서 ‘천하 대순’ 하셔서 현시하신 진리에는 인간 자신의 인지(認知)와 심신수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와 우주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순사상의 취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며, 그 역사적·

1)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纂, 『典經』,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 148쪽.

현실적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마도 관점에 따라 내려지는 평가도 다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사회 역사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사료를 정리하고 이에 근거한 ‘인문’의 관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인문 정신’이야말로 한 단체(종교를 포함하여)의 개인 건강, 사회 생활, 자연 및 환경 보호의 문제에 대한 유익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문’의 유래와 인문 정신의 기본 특질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후, 강성상제의 공사, 대순진리회의 포덕, 수도, 종지와 그 인문적 함의를 살펴 볼 것이다.

II. ‘인문’ 전통의 연원

‘인문’은 영문으로 ‘humanity’가 되는데, 때에 따라서 ‘cultural’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전자는 주로 인간 품성과 연관되는 인성(人性), 인도(人道), 인(仁)·자(慈)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후자와 비교하여 그 뜻이 비교적 좁다. 이에 비해 후자는 인류가 창조한 생존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다. 핵심 이념의 의미에서 볼 때, ‘humanity’ 혹은 ‘cultural’은 모두 인간의 존재, 인간의 기본 생활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로써 ‘humanism’, 즉 ‘인문정신’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또한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도주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양 사회에 있어, ‘인문정신’과 ‘인본주의’ 출현의 이면에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서유럽의 중세기는 특히 암울했던 시대로서, 당시 봉건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기독교가 인간의 세속 생활을 재판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 기독교의 『성경』이 확립한 교의는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최고의 준칙이 되었으며,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지식은 필히 『성경』의 교의에 의거하여 창작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종교 법정에서 엄격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중세 기독교회의 관리 체제 하에, 서유럽의 문화 예술은 활력을 잃었으며, 보수적이며 경직된 상황을 보였으므로 사람들은 정신적인 속박감과 답답함을 느꼈다. 이렇듯 사람들이 정신적인 방향과 숨막힘에 시달리고 있을 때,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악 속에서 기독교 신학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싹트면서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희망했을 뿐 아니라, 자유 경제 제도의 보장을 갈구하였는데, 이러한 갈구의 근원은 사실상 인간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승리를 위한 도전 의식이 유럽에서 흥기하게 되었고, 이로써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문예부흥’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Dante, 1265-1321)인데, 그는 신곡을 통해 중세 기독교의 암울한 통치와 부패 행위를 풍자하였다. 이후 페트라르카(Petrarch, 1304-1374)는 14행에 이르는 가집(歌集)을 만들었으며, 조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는 『십일담(十日談)』을 썼다. 이 두 학자는 단테와 다르게 문학예술을 통해 기독교회의 수구적 사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14세기 이래로 공장의 수공업과 상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유럽의 봉건제도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경제면에서의 미묘한 변화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유에 대한 꿈을 촉발하였으며, ‘인본’의 정신 세계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문학가, 예술가,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문화의 연구와 전파에 힘썼으며, 눈부신 문

명시대를 세워 나갔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에 강한 영향을 끼쳤던 ‘문예부흥’ 운동의 중요한 의의는 곧 ‘인문정신’에 대한 각성이다. 이러한 ‘인문정신’은 기독교가 유럽에 대해 가졌던 절대적 통치 상황을 타파하였고, 이로써 인간의 자아 가치를 발견하고, 공민도덕을 제창하며, 인간의 지혜와 재기를 긍정하고, 인간의 창조력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신본(神本)’으로부터 ‘인본(人本)’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인성의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수립하는 한편 완전한 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유럽을 강타한 문예부흥 운동이 창도했던 인문주의는 인간이 정신적 속박을 벗어나 그 존엄을 되찾게 함으로써 이후의 사상해방 운동에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학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는 또한 예술 창조와 과학 발전의 사상적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의심할 나위 없이 서양 사회의 진보를 크게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이든 극에 달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듯이 서양 문예부흥이 표방했던 ‘인문주의’는 종교적 금욕주의를 반대함으로써, 물질적 행복과 육체적 욕구 충족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 개인 생활의 방종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이전에 형성되었던 윤리 도덕에 관한 약속이 무너졌으며, 물질적 이익과 개인의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이후 수 백 년간에 걸쳐 세계문화의 지향점과 질서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 모든 것은 인격 교육과 사회 질서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필자는 ‘인문주의’에 대한 사유를 행함에 있어, 인류의 정신자원을 고대의 동방 문화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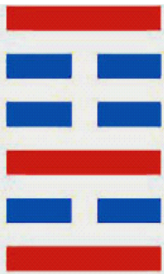
사실상, ‘인문’의 개념이 중국에 출현한 시기는 매우 이르다. 상고시대에 씌어졌으며, 중국의 선민들에 의해 ‘경전의 우두머리(群經之首)’로 일컬어지는 『역경』에서는 다수에 걸쳐 ‘인문’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역경』 비괘(賁卦)의 단전(象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문을 봐서 때의 변화를 살피며, 인문을 봐서 천하를 화하여 이루게 한다.(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중국의 고대 문자에서 볼 때 ‘문’(文)이 가진 원래의 뜻은 ‘무늬그림’이다. 한대(漢代)의 문자학자인 허신(許慎)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문, 착화야(文, 錯畫也)”라 하였다. 여기서 ‘착화(錯畫)’라는 것은 획을 교차한 것을 말한다. 한편으로, 이는 자연물의 존재 상황을 말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부호의 표식을 말하는 것이다. 상형 부호 문자로서의 ‘문’은 갑골문에서 ‘’라고 쓰는데, 이는 칼이 서로 교차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로부터 생겨난 ‘천문’과 ‘인문’ 또한 이러한 무늬그림의 원류로부터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천문’은 하늘의 형상이 나타내는 무늬그림이며, ‘인문’은 인류의 사회 활동을 나타내는 무늬그림이다.

『단전』에서 ‘천문’과 ‘인문’이 대구(對句)되어 있다는 사실은 옛 중국인들의 사유 속에 ‘인문’과 ‘천문’이 긴밀히 결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과거의 중국인들은 ‘인문’과 ‘천문’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단전의 글자와 행간에 감춰진 것은 일종의 인문과 천문을 전체적인 하나로 파악하는 사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유 체계는 후대에 이르러 잘 계승되고 발현되었다. 예를 들면, 원대(元代)의 경학가(經學家)인 진응윤(陳應潤)은 『주역효변역은(周易爻變易緝)』 제4권에서 ‘비괘’의 『단(象)』사(辭)를 해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천문’(天文)은 일(日)·월(月)·성(星)·진(辰)이며 ‘인문’(人文)은 시(詩)·서(書)·예(禮)·악(樂)이다. ‘문명이지(文明以止) [문명해서 그치니]’는 이(離)괘와 간(艮)괘의 교(交)를 의미한다. ‘관호천문(觀乎天文) 이찰시변(以察時變)[천문을 봐서 때의 변화를 살피며]’은 일월이 엮어지고 축나면 가뭄이나 재난이 오므로, 이로써 사람의 잘못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호인문(觀乎人文) 이화성천하(以化成天下)[인문을 봐서 천하를 화하여 이루게 한다.]’는 인문에는 성쇠가 있으며 천운에도 쇠락하고 왕성함이 있으니,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천문을 꿰뚫고 인문을 사고할 줄 알아야 할 것인 바, 이로써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고, 재난을 길한 일로 바꾸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진응윤은 『주역』 비괘의 『단전』에서 말한 네 구절로서 ‘천문’과 ‘인문’을 해석하였다. 그는 먼저 ‘천문’의 구체적 대상으로 일·월·성·진을 말하였으며, ‘인문’이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 시·서·예·악을 말하였다. 이에 뒤이어 그는 『단전』에서 말한 바에 근거하여, ‘문명이지’의 괘상을 분석하였다. 『단전』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인문’의 핵심적 의미는 ‘문명이지(文明以止)’인데, 이는 곧 『비』괘의 괘상에서 출발하여 얻은 해석이다. 『비』괘의 육효는 리괘(☲)와 간괘(☶)로 구성되는데, ‘리’괘는 아래에, ‘간’괘는 그 위에 자리하고 있다. ‘리’괘의 본상(本象)은 ‘화’(火)이며, ‘일’(日)을 상징하므로, ‘밝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간’괘의 본상은 ‘산’(山)이므로, ‘지’(止)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리’, ‘간’이 합하여져서 『비』괘가 되는데, 이는 산 아래에서 불이 타올라, 공간을 밝히는 뜻이므로 ‘문명’(文明)이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 ‘문명’은 자연 만물의 인도 아래서 인류가 창조한 일련의 정신문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신문화는 인간이 실제 생활에서 창조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일월과 같아서, 인간 생활을 비추므로 ‘명’(明)이 되는 것

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문명’은 인류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 필히 자신의 행위가 일정한 규칙에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止)는 곧 일정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규칙은 생활시속, 예의 그리고 법률과 규장 등을 포함한다. 『주역·비』의 괘상에서 나타난 취지를 통해 진응윤은 ‘인문’과 ‘천문’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관(觀)’의 실제 운용 과정을 강조하였다. ‘관’이란 관찰, 이해를 말하며 ‘관’의 대상은 자연계와 인류사회를 포함한다. 또한 ‘관’의 최종 목표는 다스리는 것인데, 이러한 다스림은 개인 및 개인으로 조합된 사회를 포함한다.

상술한 분석에 근거하여 필자는 중국의 전통적인 ‘인문’이 두 가지 기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문’은 생활을 통해 창조된 생존문화를 말한다. 둘째, ‘인문’은 인류가 장기간 존속하기 위해 부단히 자연법칙을 탐구하고, 사회규율을 수립·개선하고, 자연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한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서양의 인문주의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사회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인문’은 자신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선민(先民)이 말한 ‘인문’은 일방적으로 개성의 옹호를 강조한 것이 아니며, 물질적 이익 지상주의와 육욕 충족의 옹호를 주장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 전통의 ‘인문정신’은 인류 개체의 창조력과 창조성과를 인정하였고, 인격적 수양과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편, 인류가 반드시 천, 지, 인의 조화 관계 속에서 개체와 전체의 생존을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다채롭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주역』의 비괘에서 보여지는 ‘산 아래(山下)’와 ‘화(火)’의 상징으로 대별될 수 있다. ‘화(火)’는 넓은 공간 중에 많은 개체들이 창조적 작업을 통해 풍성한 성과를 얻는 것을 말하며, ‘산(山)’은 곧 개체의 생존과 전체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필히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말한다.

Ⅲ. 강성상제의 공사와 대순진리회 수도의 인문 정신

필자가 『주역』에서 논술한 ‘인문’의 의미에 따라 한국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을 탐독하고 있을 때, 『전경』의 ‘공사’ 편 내용이 『주역』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궤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역』과 매우 유사한 ‘인문적 사고’를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에 관한 부분은 『전경』 중 ‘모악산’(母岳山)에 관한 내용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 공사 제3장 6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선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二十四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碁形)이 있고 기변(碁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중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君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라」 하시고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2)

본 단락에서 일컫는 ‘모악산’과 ‘순창 회문산’이 암시하는 것은 ‘간’(艮)괘이다. 왜냐하면 ‘간’의 본상은 ‘산’이기 때문이다. 위의 『전경』 구절에서는 비록 ‘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이 그 속

2) 같은 책, 126쪽.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단주’(丹朱)라는 말에는 ‘화’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곧 전통적인 오행학에 있어, 오색인 청, 적, 황, 백, 흑과 목, 화, 토, 금, 수는 서로 상응하는데, ‘단주’는 적색에 상응하며, 이는 곧 ‘화’의 색깔이므로, 그 패상은 ‘리’(離)패이다. 패상의 위쪽에 위치하는 ‘산’은 간(艮)이며, 그 아래의 ‘화’는 리(離)이다. ‘간’은 리의 위쪽에 있어, 양자가 서로 조합되는데 이것이 곧 ‘비’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대 역사 중의 전설에 있어, 단주는 제요(帝堯)의 아들이었다. 요(堯)는 열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단주는 제요의 후계자였다. 단주는 출생 시에 온 몸이 붉었으므로 이름하여 ‘朱’(주)라 하였다. ‘주’는 ‘단연’(丹淵)에 봉해졌다고 전해지는데, 이로써 후인들이 그를 일컬어 ‘단주’라 하였다. 『태평어람』(太平御覽) 제63권의 『상서일편』(尙書逸篇)에서는 “요의 아들이 불효하여, 요는 그를 단연의 제후로 거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그를 단주라 하였다”라 전하고 있다. 『전경』에 나타난 ‘단주’는 ‘제요’의 후계자를 말한다. 연관된 설에 의하면, 단주는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므로, 그 아버지인 제요의 가르침 아래 바둑을 두는 것을 자세히 공부하여, 당시 바둑의 일인자가 되었다. 『전경』에서 말하는 ‘오선위기’(五仙圍棋)의 원류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단주’는 총명함의 상징이었거나 혹은 지혜로움의 화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주역』의 ‘비’패가 ‘화’를 통해 상징되는 것과 ‘문명창조’의 인문취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주’는 원(冤)을 갖고 있었다. 본래 그는 제요의 제위를 계승할 후계자였는데, 이러한 일에 변화가 생겼다. 제요가 통치하던 ‘추방’(酋邦)국가에 후기에 이르러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순’(舜)과 ‘익’(益)을 우두머리로 하는 씨족 부락의 수령이 ‘요’의 제위를 찬탈하려 하였다. 특히 ‘순’은 요제의 면전에서 단주를 비방한 적이 있었으며, 그들 부자 관계에서의 좋지 않은 면

을 꼬집어 말하였다. 순은 또한 요제를 설득하여, 단주를 요제가 머무는 곳에서 먼 거리에 떨어진 남쪽의 단수(丹水)에서 체후를 맡도록 하였다. 『죽서기년』(竹書紀年)에서는 “后稷放帝子朱于丹水(후직이 임금의 아들 주를 단수로 보냈다)”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임금의 아들 주’(帝子朱)는 곧 ‘단주’를 말하는 것이며, ‘放’은 ‘유배를 보냈다(流放)’는 뜻으로 이는 단주가 유배를 간 바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단주’는 억울함으로 인해 원한을 갖게 되었는데, 『전경』에서 말하는 ‘단주의 원을 푼다’는 말은 곧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해(解)는 ‘해결하여 푼다’는 뜻으로서, 역사상 존재하는 ‘원 맺힘’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기운을 순리적으로 잘 통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단주의 원을 푼다’는 것은 원한이 계속되는 것과 발생하는 것을 끝내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운기를 통하게 하여 ‘천하를 교화하고 조화롭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전경』 중의 ‘모악산’에 관한 내용은 전형적인 ‘인문상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과 ‘단주’의 의미를 통해, 간괘와 리괘의 오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역』의 ‘비’괘와 연관하여 서로 간의 모순을 없애고, ‘바둑’을 두는 기법을 거울 삼아 심성을 다스리고, 인격을 완성하며, 인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사회를 안정시킬 것을 말함으로써 후인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 상술(上述)한 단락은 『전경』 전체 내용 중의 정수(精髓)이자 핵심적인 부분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마땅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 뜻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경』에 나타난 ‘인문 상징’의 취지를 이해한 후에, 다시 대순진리회의 수도 공부가 내포하고 있는 인문적 의미를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순’ 신앙의 최종적 목표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격수양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과 『대순지침』을 살펴보면, 인격 수양이 대순진리회의 종교 신앙체계에서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지침』에서는 인격수양의 목표는 곧 합격된 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 도달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일련의 ‘수도’ 공부를 진행해야만 한다.

‘수도’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춘추시기의 노자(老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사마천은 『사기』 63권의 『노장신한열전』(老庄申韓列傳)에서 “노자는 도와 덕을 닦는 데 힘썼으며, 그의 학설은 자신을 감추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고, 또한 노자는 “백 육십여 세 혹은 이백여 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도를 닦아 장수한 것이라”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노자가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도에 힘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도덕경』을 통해서도 알아 볼 수 있는데 『도덕경』의 54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도로써 자신을 닦으면 그 덕이 진실되며 (修之于身 其德乃眞)
 도로써 가정을 다스리면 그 덕이 여유롭고 (修之于家 其德乃餘)
 도로써 마을을 다스리면 그 덕이 장구하며 (修之于鄉 其德乃長)
 도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이 풍요롭고 (修之于邦 其德乃豊)
 도로써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이 널리 미치게 된다. (修之于天下 其德乃普)

노자가 말하는 ‘수’(修)는 곧 수도(修道)이다. 이 말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나 그 시작점은 개인이다. 즉 나를 수양함을 통해 ‘진’(眞)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진’은 성실하고 소박하며 속이지 않는 것이다. 후대의 도가 학파는 노자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발양하였다. 예를 들면, 주대(周代) 『문자』(文子) 하권의 「상인편」(上仁篇)에서는 말하길 “도를 닦아 덕을 행하는 것은 천지의 성

(性)에 기인한다”라 하였다. 그 의미는 곧 대도를 닦아, 덕을 쌓는 것이 천지의 본성을 따르고 좇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대(漢代) 이래, ‘수도’는 도교의 기본 실전이 되었는데, 『열선전』(列仙傳)으로부터 『신선전』(神仙傳), 『포박자』(抱朴子)로부터 『운급칠첩』(雲笈七籤), 『상양자금단대약』(上陽子金丹大藥)으로부터 『장생전경』(長生詮經) 모두에서 ‘수도’에 관한 많은 논술을 찾아낼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대순진리회에서 주장하는 수도는 근원 없는 물,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며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와 도교를 조금만 비교해 보면, 대순진리회는 한국사회 역사의 경향과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여 ‘수도’ 이론을 새롭게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우당(牛堂: 1917-1996)의 훈시집인 『대순지침』을 보게 되면, ‘수도’는 합격된 국민이 됨을 그 시작으로 한다. 『대순지침』에서는 규정하기를 수도자는 마땅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준행하며 국민복에 기여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 어떻게 하면 합격된 국민이 될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고려된 문제이다.

대순진리회는 수도자의 품격 함양을 매우 중시한다. 『대순지침』에서는 수도자는 마땅히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내심의 수양 측면에 있어 수도자가 필히 ‘성(誠), 경(敬), 신(信)’에 힘써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성’이란 품성이 덕스럽고, 진실 소박하며, 성실한 것을 말한다. ‘경’이라는 것은 천지, 귀신, 부모 및 사장(師長)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신’이란 견고한 신념을 갖고, 말에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대순지침』에서는 도인들이 마땅히 가정의 화목에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로써 “술선수범하는 도인으로서 사회의 모범”³⁾이 되어야 한다고

3)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纂, 『大巡指針』,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 13쪽.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대순진리회에서는 ‘인도’(人道)를 함양하는 것을 도인이 기본적으로 힘써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유가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修身, 齊家)의 정신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으며, 중국 도교의 ‘선도(仙道)를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도(人道)를 행하라’는 사상적 취지와 일치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 또한 현대의 수도자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에 있어 『전경』에서는 많은 전형적 사례를 들어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공사」 제2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상제께서 만국 창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서 물화상통을 펼치셨도다. 종도들이 상제의 명을 좇아 공신의 집에서 밤중에서 번갈아 그 집의 물독 물을 반 바가지씩 퍼내 우물에 쏟아 붓고 다시 우물물을 반 바가지씩 독에 붓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여러 우물과 독의 물을 번갈아 바꾸어 갈아 부엌도다.⁴⁾

『전경』의 본 단락에서 ‘종도들’이 번갈아 물을 붓는 것은 ‘놀이’의 측면이 아니며, 매우 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독의 물을 반 바가지씩 퍼내 우물에 쏟아 붓고, 우물물을 반 바가지씩 독에 붓는데, 이는 물을 붓는 횟수 면에서는 매우 균등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확실한 의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난 뒤, 장독의 물은 이미 본래의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제’께서는 ‘종도’들로 하여금 독의 물과 우물의 물을 ‘번갈아 바꾸어 갈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독의 물은 원래 우물 안의 물이었으며, 우물물이 없으면 독의 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종도들’은 물의 교합과 융합의

4) 『典經』,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119쪽.

과정을 통해 개체가 전체를 떠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인데, 수도자는 마땅히 단체 생활 중에 융합되어야 하며, 사회 생활 중에 수도를 행할 때는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높여가야만 한다.

사회생활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많은 관계와 연결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관계는 곧 이웃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말함에 있어 수도자가 필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대순지침』에서는 수도자는 마땅히 비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웃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즉, 『대순지침』에서는 “주택지 가운데 있는 연락소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차를 이용하여 참배할 시, 질서를 지켜 사회의 명량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⁵⁾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상생활 중의 세부적 사항인데, 이를 통해 수도 공부는 곧 평상시의 일거일동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대순의 수도 공부에서는 ‘도통’을 매우 중시한다. 『대순지침』에서는 “수도의 목적은 도통”⁶⁾이라고 말한다. ‘도통’은 수도자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지는 특수한 능력과 정신의 경지이다.

‘도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장자·제물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장자·제물론』에서는 “엄청난 것과 이상한 것들을 거론할 지라도, 이는 모두 도통을 통해 하나가 될 뿐이다”라 하였다. 여기서 앞의 구절은 만물이 각양각색,形形色색으로 다양함을 말하고 있으며, 뒤의 구절은 만물의 본성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곧, 『장자』 중의 ‘도통’(道通)은 단어의 조합으로서, ‘도’(道)의 의미가 ‘통’(通)에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도’는 또한 ‘통’ 할 수 있

5) 『大巡指針』,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15쪽.

6) 같은 책, 17쪽.

는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듯 짧은 어구에서의 ‘도’는 명사이며, ‘통’은 동사이다. 후에 『문자』(文子)에서도 ‘도통’을 말한 바 있는데, 『문자』의 「부언편」(符言篇)에서는 “천명에 의하여(原天命) 심술을 다스리고(治心術), 좋고 싫음을 다스리며(理好憎), 정과 성에 합당하게 되면(適情性) 곧 도통을 이룬 것이다”라 하였다. 『문자』 중의 ‘도통’은 단어의 조합으로부터 명사로 바뀐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천명’(原天命)이란 화복(禍福)에 의해 좌우되지 말 것을, ‘치심술’(治心術)은 희노(喜怒)의 정서를 통제할 것을, 그리고 ‘이호증’(理好憎)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기분 등을 다스릴 것을 말하며, ‘적정성’(適情性)은 성정(性情)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을 말한다. 『문자』에 의하면 상술한 세 가지는 동정을 순리에 맞게 해야 하고, 상벌이 정확해야 하며, 상대를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며, 절도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성(性)에 맞는 양생(養生)으로 ‘도통’에 이르는 기본 경로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자』에서 일컫는 ‘도통’은 수도의 경로와 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 일종의 수도 공부이자 수도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 하겠다.

사실상, 『대순지침』에서 말하는 ‘도통’에 관한 이론은 중국 도가 전통 사상과 연관된다. 그러나 양자를 조금 비교해 보면, 『대순지침』 중의 ‘도통’이라는 말에는 독특한 의미와 시대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 특징은 곧 강한 인륜수양(人倫修養)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대순지침』 제2편 제1장 1절에 「도통은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느니라」에서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⁷⁾라는 내용이 있다. 『대순지침』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륜의 문제이고, ‘도덕을 밝히는’ 것은 수도의 기본 자세이자 ‘사람이 근본’임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가장 중요한 인문적 함의라 하겠다.

7) 같은 책, 17쪽.

IV. 대순진리회 종지의 인문 정신

『전경』 및 『대순지침』의 논술에 의하면, 대순진리회는 수도공부로써 개인 인격 완성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건설의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이로써 ‘포덕교화’의 기본적 상황과 부수적 행동들이 형성되어 있다.

대순진리회 ‘포덕교화’의 개념은 기본 종지에 기반한 것이다. 『전경』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종지를 아래와 같이 개괄하고 있다.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8)

이 네 구절은 매우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음양 철학을 기초로 하여, 사람과 신이 상호 교류토록 하고, 맺혀 있는 척과 사회적 모순을 풀어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를 진지하게 사고(思考)해보면, 그 심오한 사상적 뿌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사회, 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인문적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음양합덕’이라는 말은 『주역·계사하』(周易·系辭下)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자(子) 이르시기를 “건괘와 곤괘는 역의 문(門)인가? 건괘는 양(陽)의 물(物)이며, 곤괘는 음(陰)의 물(物)이다. 음양이 덕을 합하니, 이로써 강(剛)과 유(柔)의 체(體)를 이룬다. 이러한 체(體)로써 천지의 일을 가려내며, 신명의 덕과 통한다”라 하였다.

앞선 이들의 해석에 근거해 보면, 여기서의 ‘자’(子)는 유가(儒家)의 성인인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8) 『典經』,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210쪽.

는 것이다. “건곤(乾坤)은 『역』의 대희랑을 여는 문인가? 건(乾)은 양성(陽性)적 사물을 대표하며 곤(坤)은 음성(陰性)적 사물을 대표한다. 음과 양이 그 덕(德)과 공(功)을 합하면 그때 강과 유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돌고 도는 음양을 통해 천지 변화의 수(數)를 살필 수 있으며 신명 조화의 품성을 깨달을 수 있다.”

상술한 『주역·계사하』의 단락을 해석해 보면, ‘음양합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덕’이 내포한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순진리회 중지의 첫 번째 구절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덕’은 중국 상고시대의 갑골문자에서 로 쓰였는데, 그 바깥쪽은 사방으로 대도(大道)에 통하고, 가운데는 한쪽 눈과 같다. 이는 전진하는 방향을 명확히 보는 가운데 곤혹스러움이나 잘못됨이 없는 것을 말하며 안정된 모습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가의 종사(宗師)인 노자는 전통적인 ‘덕’의 함의에서 파생된 대도의 에너지와 기능을 말하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 51장에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으로써 만물을 기른다”라 하였는데, 이는 양육(養育) 기능의 의미에서 ‘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후 사회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덕’의 의미 또한 더욱 증대되었는데, ‘하늘의 도에 부합된다(合乎天道)’, ‘걸림이 없이 자유롭다(自得自在)’, ‘표준에 부합된다(合乎標準)’와 ‘합당한 위치(適當位置)’라는 종합적 개념들로 ‘덕’을 해석하게 되었다.

상술한 내용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음양합덕’은 천도에 의거하여 ‘음’과 ‘양’이 각자의 위치를 지니면서 서로 조화롭게 운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 수립을 주창하고 또한 자기 개발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대순진리의 인문적 취지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음양합덕’의 철학적 사고를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와 연관하여 『전경』에서는 ‘신인조화’(神人調化)의 명제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화’(調化)라는 것은 곧 조화(調和)되어 통화(通化)한다는 것으로서, ‘신인조화’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 감통과 조화를 이룸은 물론 공동으로 교화의 대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상서·순전』(尙書·舜典)에 언급된 단락에서 그 사상적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팔음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빼앗지 않게 하면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

이와 관련하여 중국 송대(宋代)의 학자인 위요옹(魏了翁)은 『상서요의』(尙書要義) 제2권에서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백이가 제위를 사양하므로 요임금은 그를 악관(樂官)에 임용하였다. 제요가 그를 기(夔)라 이르며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짐은 그대가 악사(樂事)를 다스리도록 명하니, 시(詩)와 악(樂)으로 제위에 오를 장자(長子)를 가르치도록 하여 장자가 정직하고 온화하며, 마음이 넓되 용감하고, 굳센 의지를 지니되 잔혹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일을 쉬이 가능할 수 있게 하되 오만하지 않게 하라. 시와 악으로 장자를 교육하는 것은 시(詩)가 사람의 의지를 말하기 때문이며, 노래를 읊는 것은 곧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체득하기 위함이니, 이로써 언설(言說)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악(樂)이란 곧 이렇듯 소리의 운율로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한다. 이런 이유로 율呂(律呂)와 장가(長歌)가 합해지면 팔음(八音)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이 화합을 이루게 되므로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된다. 모든 일의 도리(道理)가 이와 같으니 신과 사람도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夔)가 순에게 답하기를, “아아, 제가 석경(石磬)을 치면 소리와 곡조가 질서 있고 조화로워지므로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 춤을 출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악(樂)이란 바로 이러한 감흥을 말하는 것이니, 인간과 사람도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 하였다.⁹⁾

9) 본 단락은 『四庫全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국어』(國語) 등의 서적 기록에 의하면, ‘백이’(伯夷)의 성은 강씨(姜氏)였고, 염제(炎帝)의 14대 손자였으며, 공공(共工)의 종손이었는데, 약 2300년을 전후로 하여 생활하였다고 전한다.¹⁰⁾ ‘기’(夔)는 순제의 악관(樂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제요(帝堯)시대에 백이가 정치를 도왔고 예의(禮儀)를 관장하였는데, 요순이 부락 연맹을 다스리는 것을 도왔으며, 정치적으로 많은 공을 세웠다. 요는 그에게 제위를 물려주고자 하였으나, 백이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제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순을 추천하였다. 순이 제위에 있을 때 정식으로 백이를 ‘질종’(秩宗)으로 임명하여, 예부(禮部)의 관원들을 관장하게 하였다. 글 중의 ‘백이가 양보하다’는 것은 백이가 제위를 순에게 양보한 것을 말한다. 전체 문단의 핵심 의제는 ‘시’(詩), ‘악’(樂)으로써 신인을 조화하는 것이다. 순은 ‘기’(夔)로 하여금 ‘시’, ‘악’의 교화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그 출발점은 장자(長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율려(律呂)를 조화하여 신인이 서로 통하고 화합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이러한 ‘시’, ‘악’의 감통과 신인을 조화하는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전경』에서 말하는 ‘신인조화’(神人調化)와 『상서』(尙書)에서 일컫는 ‘신인이화’(神人以和)는 전통적인 사상의 문제에 있어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전경』에서는 『상서』(尙書) 중의 ‘신인이화’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신인조화’의 명제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만약 ‘신인이화’가 율려 조화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라면, ‘신인조화’에서 중시하는 것은 과정이며 인간과 신의 상호작용이다. ‘어울린다(調)’는 것은 쌍방 간의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신의 어울림(調), 혹은 신에 대한 인간의 어울림(調)을 말한다. 이렇듯 신과 인간이 조화로우어 어울리게 되면 곧

10)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도 「백이열전」(伯夷列傳)이 수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에서의 ‘백이’는 곧 고죽군(孤竹君)의 아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국어』(國語)에서 언급하고 있는 백이는 요순시대의 인물이므로 이를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화’(化)가 있게 되는 것이다. ‘화’(化)란 곧 화육(化育), 화생(化生), 화해(化解)를 말한다. 사람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기(氣)가 서로 감통을 이루게 되므로, 만물이 화육할 수 있고 생의 기운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전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일련의 의례적 특징을 지닌 ‘공부’(工夫)로써 인신을 서로 통하게 하고, 재난과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르러서도 도주께서 수도공부를 견지하셨음을 볼 수 있다. 형태적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공부는 특별한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전경』의 「교운」 제2장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래와 같다.

도주께서 기축년 겨울에 동래 마하사(摩訶寺)의 방 한 칸에서 정화수 스물 네 그릇을 받들고 四十九일을 한 도수로 정하시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광석(李光石)이 대웅전에서 도주를 위해 발원 염불을 올리니라. 四十九일이 거의 될 무렵에 도주께서 승려와 시종자에게 「법당의 불상을 자세히 보았느냐」고 물으시므로 그들이 달려가 보니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도다. 도주께서 四十九일을 다 채우신 새벽에 공부실 위에 학이 울며 날아가고, 시종자에게 그동안 모아 놓은 글씨 종이를 태우고 그 재를 시냇물에 띄우라고 이르시므로 시종자가 그대로 하니 시냇물에 무지개가 서는도다. 11)

이 단락의 기록은 매우 신기하다. 글 중에서 올리는 물은 ‘정화수’인데, 이는 아침에 가장 먼저 뜬 맑은 우물물을 말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정화수는 맛이 달고 평(平)하며, 독이 없고, 신(腎)을 편하게 하고, 진정 작용을 하며, 열을 내리고, 음기(陰氣)를 보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화수를 채수로 하는 것은 신불(神佛)에게 경건한 예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숫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상징과 유관하다. ‘二十四’는

11) 『典經』,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223쪽.

이십사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천지 기운의 흐름을 말한다. ‘四十九’는 주역에서의 ‘대연’(大衍)의 수이다. 『주역·계사상』(周易·系辭上)에서는 “대연(大衍)의 본수는 오십이며, 쓰이는 것은 사십 구이다.”라 하였다. 이로 볼 때, 도주께서 공부를 행할 때는 대연의 본수를 쓴 것이 아니며, 그 중 쓰이는 수인 49를 쓰신 것이다. 또한 스물 네 그릇의 정화수와 49일 간의 공부 및 49일 간 태운 부(符)의 수와 재를 뿌리는 의식은 모두 ‘조(調)’를 이루기 위한 공부인데, ‘학이 우는 소리’ 및 무지개의 출현은 모두 ‘화’(化)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調)가 있으면 ‘화’(化)가 있으며, 신인이 함께 노력하여 우주의 운기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조화의 공부는 인간이 신에 대해 숭앙을 표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인류를 위해 재난을 없애고 좋고 길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 숨겨진 것은 ‘인본(人本)’의 사상이니, 이러한 사상은 ‘해원 상생’의 내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약, ‘신인조화’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 ‘해원 상생’의 중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간과 인간 간에 맺은 많은 원한이 우주의 기운과 인간 간의 소통을 막은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해원’이 필요하다. 맺힌 원을 풀게 되면, 우주의 기운이 다시 잘 통할 수 있게 되며 인간 사회의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인 인문적 관심과 배려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초기 도교에서는 이미 ‘원결(冤結)’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다. 한대(漢代)에 발생한 태평도(太平道)의 경전인 『태평경』(太平經)에는 『원류재구기방결』(冤流災求奇方訣)이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작자는 요절, 재난을 당함과 억울하게 죽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천지에 하소연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았다. 한대 이후, 도교에서는 ‘해원’에 대한 이념과 관련 의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

정통도장』(正統道藏)에서 명확하게 ‘해원’이라는 단어를 쓴 경전은 모두 네 종류로서, 『태상도군설해원발도묘경』(太上道君說解冤拔度妙經), 『태상삼생해원묘경』(太上三生解冤妙經), 『태상설통진고황해원경』(太上說通眞高皇解冤經), 『원시천존설동악화신제생도사발죄보명현범고주묘경』(元始天尊說東岳化身濟生度死拔罪解冤保命玄範浩呪妙經)이 이에 속한다. 이 네 부의 경전 중 『태상도군설해원발도묘경』은 ‘동현부·문본류’(洞玄部·文本類)에 수록되어 있는데, ‘태상도군’이라는 신칭(神稱)으로 보면 대략 위진남북조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태상삼생해원묘경』 역시 ‘동현부·문본류’(洞玄部·文本類)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당(隋唐)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태상설통진고황해원경』은 만력 『속도장』(續道藏)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태상도군설해원발도묘경』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당송 이래 과의(科儀)의 개조본이라 할 수 있다. 『원시천존설동악화신제생도사발죄보명현범고주묘경』 역시 만력 『속도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작가는 미상이며 대략 명조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도교 경전 4부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간의 원 맺힘에 관한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자들은 글을 통해 ‘원결(冤結)’의 결과로서 지하세계에서 재판을 받아 사람과 귀신으로서 연관되고, 이로써 사람이 음귀(陰鬼)가 되어 수난을 겪고 인세에서 보복을 당하므로 필히 경(經)을 송독하고 참회하는 등 과의 법도로써 이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장』 중의 해원류 경서와 대조해 볼 때, 대순진리회의 ‘해원’에 관한 종지는 중국의 도교와 일치성을 갖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해원 교리에는 고유한 개념과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전통사상을 흡수한 기초 위에서 크고 작은 모든 차원의 현상에 대응되는 해원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전경』과 『대순지침』은 모두 ‘해원’과 ‘상생’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모순을 해결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원만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경』 「공사」편의 제3장 4절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12)

『전경』의 이 구절에서는 ‘예로부터’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첫째, ‘원결(冤結)’은 그 유래가 매우 장구하며 고대에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류에게 쌓여 왔던 ‘원결(冤結)’을 없애는 것이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시는 목적이라는 점이다. 상제께서는 ‘공사’를 행하심에 있어, 왜 ‘원(冤)’을 문제 삼으셨던 것일까? 이는 사회가 평화로울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원을 해결하는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만약 ‘원결(冤結)’이 해결 되면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¹³⁾ 변화가 발생하며, 전체적인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은 『전경』의 「공사」와 「교운」의 ‘행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국운에 대한 해원 공사 내용과, 가정과 사회의 원결(冤結)을 해결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전경』에 기록된 ‘해원’공사의 내용은 비단 말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으로 최고신격에 위치하는 강성상제께서 직접 어떻게 원결(冤結)을 해소하였는지를 밝혀 그 의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교운」 1장에서는, 강성상제께서 동학도들이 원평(院坪)에서 집회를 한다는 상황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네들로 하여금 앞으로 갑오(甲午)와 같은 약탈의 민폐

12) 같은 책, 125쪽.

13) 같은 책, 같은 쪽.

를 없애고 저희들 각자가 재산을 쓰게 하리라. 내가 먼저 모범을 지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본택의 살림살이와 약간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전주부중에 가서서 지나가는 걸인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로부터 일진회원들은 약탈하지 않고 자기 재산으로 행동하니라. 이 일로써 전주부민들은 상제께서 하시는 일에 감복하면서 공경심을 높였도다.¹⁴⁾

이상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원’ 공사는 하층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대순사상의 관심과 배려를 반영하고 있다. 즉, 상제께서는 가산을 판 돈을 거지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근본으로 한다’는 정신의 실천이며, 천하의 자비이자 선행이기에 이에 내포된 인문적 관심과 배려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원상생’의 지향점은 곧 ‘상생’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생’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서로간의 협조를 통해 생존의 적극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최종적으로 대도(大道)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로써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위대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진’(眞)은 중국 상고시대의 금문에서 ‘眞’이라 썼는데, 이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알몸을 매장하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서』(眞書) 51권 『황보밀전』(皇甫謐傳)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고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에게 쏠나무로 옷을 입혀 시체를 광야에 버렸으며, 진흙으로 관을 덮지 않고, 비석을 세우지도 않았으므로 죽음으로써 참됨을 얻도록 하였고, 육체는 죽었으며 끊임없는 생명의 윤회를 욕되지 않게 하였다”.

글에서 말하는 ‘고’(古)는 매우 오래된 옛 시기를 말하며, 위의 내용을 말한 사람은 황보밀(皇甫謐)이다. 그는 동한(東漢) 건안(建

14) 같은 책, 151-152쪽.

安) 20년(기원전 215년)에 출생하였으며 서진(西晉) 태강(太康) 삼년(기원전 282년)에 사망한, 유도(儒道)를 겸비한 대 의학가이다. 황보밀이 보기에 고대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쏘나무(柴薪)로 옷을 만들어 입혀 광야에 버리는 것을 장례라 하였는데, 이 때 관을 덮지 않았고 비석을 세우지 않았으니 사망을 통해 ‘진’(眞)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신체는 완전하다는 것과 연관된다. 『진서』의 황보밀에 쓰여 있는 이 구절은 상고시대의 『역경』을 그 근거 자료로 하고 있다. 이로써 ‘죽음으로써 진을 얻는다’는 관념은 한진(漢晉) 시대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상고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망’은 또 다른 말로 ‘진으로 회귀한다(歸眞)’라고도 한다. 임희일(林希逸)은 『장자구의』(莊子口義) 제7권에서 『장자·제물론』(莊子·齊物論)을 해석하는 데 있어 “죽음으로써 진(眞)으로 돌아간다”라 한 바 있다. 청나라 때의 형부상서였던 서건학(徐乾學)은 『독례통고』(讀禮通考) 제84권 『나장』(裸葬)을 편찬함에 있어, “시체를 흙과 같이 하면 참의 이치로 돌아간다”라 하였다. 이러한 예로써 알 수 있듯이 ‘진으로 회귀한다(歸眞)’ 와 ‘진으로 돌아간다’(返眞)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두 사망을 뜻하는 말인 것이다. 그 중 ‘귀’(歸)는 곧 복귀(復歸)를 말하는 것이며, ‘반’(返)은 곧 ‘되돌아가다(回返)’ 를 말하는 것인데, 사망하여 ‘진’으로 복귀한다거나 ‘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상고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나체를 장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에 함유된 깊은 뜻은 장식을 가하지 않음을 말하고, 사치를 반대하며 죽은 자를 순박한 방식으로 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진’은 소박과 실용을 뜻한다.

‘죽음’을 ‘진’으로 보는 생명 문화는 이후 도가에 의해 그 의미가 파생되고 그 뜻이 더욱 숭고해졌다. 도가 이론의 큰 스승인 노자와 장자는 모두 상고시대 ‘진’의 순박한 의미를 보존하는 기초 위에서 ‘본성’, ‘본원’, ‘자연’의 의미를 말하였다. 그러므로 도가에

서 일컫는 ‘순수했던 상태로 돌아가 참됨을 회복해야 한다(返朴歸眞)’는 것은 자연 본성으로 회귀할 것과, 언제나 성실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노자 『도덕경』의 41장에서는 ‘소박하고 진실하다(質眞)’는 말로써 만물이 지닌 ‘대도’의 품성을 형용하였다. 장자에서는 ‘진인’(眞人)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진을 지니면 능히 “물에 들어가서도 젖지 않으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하여 신통한 진인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한대(漢代)이래 도교는 수련을 통해 신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신선은 ‘진인’으로 불리웠으며, 진인이 거주하는 곳을 가리켜 ‘진경’(眞境)이라 하였다. 예를 들면, 『운급칠첩』(雲笈七籤) 제69권의 『칠반령사론』(七返靈砂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보신단’(靈寶神丹)을 먹은 후에 자연히 몸이 가벼워지고 신령스러워지며, 몸에 광채가 나고 스스로 진경을 밝게 되니 이것이 곧 상선(上仙)의 경지이다.” 송대의 도가 학자인 제백수(褚伯秀)가 쓴 『남화진경의해찬미』(南華眞經義海纂微) 제36권에서는 『장자·천지』(莊子·天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천제가 거하는 곳이 곧 진경이다(帝鄉眞境)’라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도교에서 말하는 ‘진경’은 신선이 거주하는 이상적 세계임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도통진경’으로 수도, 포덕의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노자, 장자 일파의 도가 학자들이 말한 순박한 본성으로 회귀하자는 정신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진(漢·晉)시대 이래 중국 도교가 추구했던 ‘진경’의 의미와도 합치된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대순진리회의 ‘진경’이라는 말은 사회 생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경』에서는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개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지상신선실현,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세계개벽.¹⁵⁾

이 두 단락의 의미를 통해 보면, 모두 ‘지상’(地上)이라는 개념을 필두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대순진리회에서는 현실과 사회 생활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세상은 지상 위에 있으므로, 대순진리회에서는 수도를 통해 신선이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현실 사회를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인간개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결(冤結)’을 해결하고 난 뒤, 인간 세계의 각종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원래의 좋지 않은 상황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개인 인품이 더욱 완벽해지며, 사회가 조화로운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물질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정신생활도 더욱 발전되고 완전해지게 되었는데, 이로써 순박·선량·성실·상호 돕기·자선과 같은 인류 본연의 우수한 품성이 회복되고 발양되어 인간 사회는 진정으로 서로를 기만하지 않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생활 환경에서는 오염을 배제함으로써 자연 생태는 충분한 보호를 받게 되고 산과 바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초목이 생기를 되찾아 멋진 모습을 갖게 된다.

이는 곧 ‘지상신선실현’의 상태가 ‘지상천국건설’로 확대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상신선실현’이 어떤 지역에서의 인간 사회의 개조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상천국건설’은 전인류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상황을 맞이하길 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세계개벽’을 이루었다는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벽’이라는 말은 중국 고대의 서적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국어·월어하』(國語·越語下)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밭과 들을 개벽하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며, 민중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서한(西漢)의 학자였던 양웅(揚雄)은 『법언·과견』(法言·寡見)에서 말하길 “천지가 개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병도

15) 같은 책, 210쪽.

(兵道)의 관점에서 보건대, 진대(秦代)에는 통치자가 오로지 군사적 투쟁만을 일삼고 도덕을 중시하지 않았으므로 옳다고 볼 수 있는 바가 없다”라 하였는데, 고대인들이 말하는 ‘개벽’이란 ‘천지 개벽’, ‘개창 창립’과 ‘도로 개통’ 등의 다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순진리의 ‘개벽’은 ‘도통’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로써 지상천국건설의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여, 세계 각지 사람들과의 장벽을 없애고 서로 우호적으로 교류하며 배려하는 것이다. 이 때, 사람들은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짐으로써, ‘죽음과 삶이 같아지는 경지(生死如一)’에 이르고,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는(高下不分)’ 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로써 모두가 성현이 되고 신선이 되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나(無爲), 하지 않음이 없는(無不爲)’ 진경에 도달하게 되리라. 이러한 멋진 광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없이 매력적일 것이다!

V. 결어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는 일반적인 사회 단체가 아니며 완전한 신앙체계를 갖춘 종교 조직이다. 대순진리회는 명확한 종지, 신조와 목적을 구비하고 있음과 동시에, 독특한 수도 공부와 처사의 원칙을 형성하고 있다. 종교 신앙 문화의 결정체로서 그 경전은 풍부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해 볼 때, 그 지향점이 곧 ‘인간’임을 발견할 수 있다. 『대순지침』의 말로써 표현한다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¹⁶⁾

비록 대순진리회의 경전에서 조직의 신앙하는 바가 ‘인본(人本)’

16) 『大巡指針』,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7쪽.

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대순지침』에서는 ‘인존사상’(즉 화평사상)¹⁷⁾을 대순진리회의 요의(要義)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존사상’은 또한 대순진리회의 인문정신에 포함되며, 인존사상의 직접적인 기능은 곧 ‘평안으로서 삶을 이롭게 하는 것(平安利生)’이다.

『대순지침』에서는 “우주대원(宇宙大元)의 진리가 도”¹⁸⁾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가 수 십 년간 탐색한 바에 따르면 ‘도’의 본의는 곧 ‘안’(安)이다. 중국 상고시대의 금문(金文)을 보게 되면, ‘도’라는 글자는 십자로에 묻힌 사람의 머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즉 옛 사람들은 전쟁을 하여 갑을(甲乙) 중에 한 쪽이 패하게 되면 패한 쪽의 우두머리를 십자로에 묻는 풍습이 있었다. 선민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필히 땅에 묻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로써 ‘땅에 묻음으로써 평안하게 한다(入土爲安)’는 관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적의 우두머리를 묻는 것은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안위를 얻는(鎮懾爲安)’ 기능이 있었다. 고인들은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수밭’(修祓)의 종교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식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곧 다른 종족의 사람 머리를 교차로에 묻고 주문을 외워 이로써 보안의 효과를 얻는 것이었다. 상고시기의 이러한 평안에 대한 관념은 노자에 의해 계승되고 발양 되었는데, 노자는 『도덕경』 제35장에서 “대상을 잡아(執大象) 천하를 왕래하면(天下往) 어디를 가도 해를 입지 않고 크게 안락하고 편안하다”라 하였다. 노자가 말하는 ‘대상(大象)’은 곧 ‘도’이며, ‘집대상(執大象)’이라는 것은 대도를 신앙하고, 대도를 봉행하며, 대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천하왕(天下往)’이란 성인이 대도를 봉행하면, 천하 만물이 모두 대도로 회귀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도덕경』의 내용에 의하면, 천하 만물이 모두 대도로 귀의하게 되면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게

17) 같은 책, 6쪽.

18) 같은 책, 8쪽.

된다. 그러므로 대도는 ‘크게 평안하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안’은 물론 안전이라는 뜻인데, ‘평’은 태평이라는 뜻으로서, 안전과 태평이 합쳐지게 되면 결국 평안이 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노자가 말한 ‘도’의 요의(要義)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우주대원의 진리를 ‘도’라 하였는데, 이러한 ‘도’는 중국의 도가에서 말하는 ‘도’와 동일하며, 여기에는 ‘안(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전경』과 『대순지침』이 확립한 신조는 ‘안심’, ‘안신’으로서 이는 입문의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여기서의 ‘안심’과 ‘안신’은 비록 마음을 정(靜)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심신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어 안전과 보호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결국 평안이 전제가 된다. 이렇듯 대순진리회에서는 ‘평안에 대한 희구’를 근본으로 하여 신앙인들이 열심히 수도에 정진하고 있으며, ‘仙佛儒大道精通(선불유 대도에 정통)’¹⁹⁾하고, “淸華五萬年龍華仙境，一一同躋之地(청화오만년용화선경에 모두 동참)”²⁰⁾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경』에서 일컫는 ‘대도’는 곧 ‘평안지도’이며, 이로써 창건되는 ‘용화선경’은 ‘모든 사람이 평안하며(人人平安)’, ‘영원토록 평안하고(歲歲平安)’. ‘모든 곳이 평안함(處處平安)’을 보장할 수 있는 지상천국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대순진리회를 ‘인류 평안’을 포덕의 방향으로 하는 신앙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렇듯 인류를 존중하고 인류 평안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 신앙이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과 반드시 세인들의 환영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 『典經』, 간체본,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211쪽.

20) 같은 책, 211쪽.

论“大巡”的人文旨趣与平安利生功德

詹石窗*

中国四川大学·教授

- 一、引言
- 二、“人文”传统追溯
- 三、“大巡”的公事与修道生活的人文底蕴
- 四、“大巡”宗旨的人文精神
- 五、结语

一、引言

最近几年来，韩国大巡真理会的国际知名度不断提高，外界对该会的了解也逐渐增多。

顾名思义，“大巡真理会”就是以“大巡”精神作为核心纲领的宗教信仰组织。“大巡”一词首见于《尚书·泰誓下》：“时厥明，王乃大巡六师，明誓众士。”后来有不少历史文献常用“大巡”来表示领袖人物检阅部队的活动。韩国“大巡真理会”的《典经》则以“大巡”来陈述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巡视天下，以真理启迪信徒。例如该经的《教运》第一章谓：“一切原始神圣、佛、菩萨等汇集一起仰望九天控诉人类与神明界之罪恶与劫难。吾降临西洋大法国之天启塔，大巡天下……”¹⁾按照《典经》的描述，姜圣上帝之所以“大巡天下”，是因为三界混

* 1954年生，哲学博士，现为四川大学老子研究院院长，世界道家联谊会副会长。
1)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第148页。

乱，道基断绝，神明、佛、菩萨对三界种种罪恶以及劫难予以申诉。在这种情况下，姜圣上帝下凡，大巡天下，一方面是检视人间与神明界的实际状况，另一方面则是要解决人间面临的困境，即如何免除“劫难”。要免除“劫难”，必须反省“罪恶”，这个反省过程就是修道过程，也是教化过程。

根据上述思路，大巡真理会逐步形成了一整套攸关人类行为和精神生活的思想，也就是关于修身养性、治世安民的道理。因为修身养性、治世安民的行为是在一定的宇宙空间秩序下发生的，所以这种行为也就与宇宙秩序结下不解之缘。从这个角度看，姜圣上帝“大巡天下”所要启示的真理不仅包含了人对自身的认知、身心修养，而且包含了人如何处理社会关系、处理人与自然宇宙的关系等等问题。

如何认识大巡真理会的教旨？如何评估其历史与现实作用？站在不同立场将会有不同的看法。基于社会历史与文化背景的相关史料梳理，笔者打算从“人文”角度切入来展开分析。之所以选择这样的角度，是因为“人文精神”乃是判断一个团体（包括宗教）是否对个体健康有利、对社会群体生活有利、对维护自然环境有利的核心准则。鉴于此，本文以下部分拟从“人文”的由来、人文精神的基本特质说起，继而讨论大巡真理会的公事、布德修道生活、宗旨的意涵及其人文底蕴。

二、“人文”传统追溯

在英文里，“人文”称作“humanity”，有时也称作“cultural”。在这两个词中，前者侧重于作为人类品质的人性、人道、仁慈的陈述，其意义相对较窄；而后者则泛指人类创造的生存文化，其意义相当宽泛。如果从其核心理念来看，不论是“humanity”或者“cultural”都是以承认人的存在、人的基本生活和地位为前提的概念。由此，便引出

了“humanism”也就是“人文精神”的概念，这个概念又被称作“人文主义”、“人本主义”、“人道主义”等。

在西方社会中，“人文精神”或“人文主义”的出现有其特定历史背景。正如许多学者所指出的，西欧的中世纪是个特别黑暗的时代，基督教会成了当时封建社会的精神支柱，具有裁判人间世俗生活的绝对权威。基督教的『圣经』所确立的教义被当作裁判人们行为的最高准则，哲学、文学、艺术等各类知识学科都必须遵照『圣经』的教义来进行创作，否则就会遭到宗教法庭的严厉制裁。在中世纪基督教会管制下，西欧的文化艺术丧失了活力，呈现出一派保守和僵化的状态，人们的精神非常苦闷。正当人们彷徨、苦闷之际，一场“黑死病”在欧洲蔓延开来，人们在恐慌之中开始怀疑基督教神学的绝对权威。

随着资本主义商品经济萌芽的衍生，人们不仅希望经济自由，而且渴求经济自由的制度保障，这种渴求的最终根源实际上是关于人自身自由的希望。在这种希望的激励下，冒险求胜的风气逐渐在欧洲兴起，随之而来的就是“文艺复兴”运动。它肇始于意大利诗人但丁（Dante, 1265—1321）『神曲』对中世纪基督教黑暗统治和腐败行为的讽喻，稍后的彼特拉克（Petrarch, 1304—1374）创作十四行抒情诗集『歌集』，乔万尼·薄伽丘（Giovanni Boccaccio, 1313—1375）撰写了『十日谈』，这两位学者也都与但丁一样，通过文学艺术表达他们对基督教会守旧思想的不满。十四世纪以来，随着工场手工业和商品经济的发展，资本主义关系已在欧洲封建制度内部逐渐形成。这种经济上的微妙变化，进一步催生了人们希望自由的美梦，唤醒了回归“人本”的精神世界。于是，一大批文学家、艺术家、学者致力于古希腊文化的研究与传播，并且造就了光辉灿烂的时代文明。

发端于意大利并迅猛影响整个欧洲的“文艺复兴”运动的重要意义就是“人文精神”的觉醒。这种“人文精神”的基本内涵是：打破了基督教在欧洲的绝对统治局面，从而发现了人的自我价值，提倡公民道德，肯定人的聪明才智，激励人的创造力。其思想标志是：从“以神为本”转变为“以人为本”，强调人的个性发展，并且通过这种发展来推动新

的社会秩序的建立和不断完善。

从历史的观点看来，席卷欧洲的文艺复兴运动所倡导的人文主义在很大程度上冲破了阻碍人们正常生活的精神枷锁，恢复了人的尊严，为后来的思想解放运动扫清了道路，也为各种世俗哲学的勃兴奠定了基础，为艺术创作与科学发展提供了思想动力，对于西方社会的进步无疑具有巨大的积极推动作用。

然而，物极必反。西方文艺复兴所标榜的“人文主义”，在反对宗教禁欲主义的同时过度地鼓吹物质幸福和肉欲满足，在反对禁锢个性的同时主张个人生活的行为放纵。于是，以往所形成的伦理道德约束几乎都被打破了，追求物质利益和满足个人欲望成为当时的一种社会时尚，并且在后来的几百年中深深地影响了世界文化的走向与秩序，这一切对于人格教育和社会的有序发展来说是有负面作用的。

鉴于上述情况，笔者在思考“人文主义”的时候不得不回到古代东方文化里寻找那些有助于人类生活的精神资源。

事实上，“人文”这个概念在中国出现得很早。成书于上古且被中国先民奉为“群经之首”的《周易》便多次使用了“人文”这个词汇。该书《贲卦》之《象传》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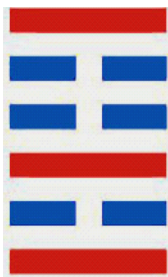
观乎天文，以察时变；观乎人文，以化成天下。

在中国古文字里，“文”的本义是“纹理”。汉代文字学家许慎《说文解字》谓：“文，错画也。”所谓“错画”，指的就是纹理交错成画。一方面，这是自然物的存在状态；另一方面，这又是一种书写符号的表征状态。作为象形符号文字，“文”在甲骨文中写作“𠄎”，像刀具刻画出来的交错纹理。由此衍生的词汇“天文”与“人文”也就应该从纹理的源头予以了解。从这个角度看，“天文”即天象所呈现出来的纹理；“人文”即人类社会活动所呈现出来的纹理。

《象传》将“天文”与“人文”对举，说明在中国先民心目中，“人文”是与“天文”紧密联系在一起。甚至可以说，中国古人所谓“人文”是无

法与“天文”分开的，其字里行间潜藏的是一种整体把握思路。这种整体把握思路在后来的学者中得到很好继承和发挥。例如，元代经学家陈应润在其所撰的《周易爻变易缙》卷四解释“贲卦”之《象》辞时说：

“天文”，日月星辰也；“人文”，诗书礼乐也。“文明以止”，离、艮之交也；“观天之文，以察时变”：日月或有薄蚀，水旱或至灾异，以验人之休咎。“观乎人文，以化成天下”：人文有盛衰，天运有消长，治天下者，盖于天文、人文考之，庶能转祸为福，使灾异变为祯祥，而天下大治。



陈应润紧紧扣住《周易·贲》之《象传》上述四句话进行解释。他首先指出“天文”的具体对象是日、月、星辰，而“人文”的具体承载内容是诗、书、礼、乐。紧接着，他又根据《象传》所讲的“文明以止”作了卦象分析。按照《象传》的说法，“人文”的核心意义是“文明以止”。《象传》这个说法是从《贲》卦的卦象出发所做出的解释。《贲》卦六爻，由《离》卦（☲）和《艮》卦（☶）组成；《离》卦在下，《艮》卦在上；《离》卦的本象是“火”，又象征“日”，具有“亮丽”的意涵，《艮》卦的本象是“山”，具有“止”的意涵。《离》、《艮》组合，成为《贲》卦，表示山下有“火”在燃烧，照亮了空间，所以有“文明”之说。一方面，“文明”表示人类在自然万物启迪下产生了一系列精神文化，这种精神文化是人们在实际生活中创造出来的，它们像日月一样，可以作为人们生活的参照系，所以谓之“明”；另一方面，“文明”意味着人类为了能够集体生存，必须让自己的行动符合一定的规则，所谓“止”即表示人遵循一定的规则，这些规则包括生活习俗、礼仪、法律规章等等。按照《周易·贲》的卦象旨趣，陈应润阐述了“人文”与“天文”的关系，强调了“观”的实际操作过程，所谓“观”就是观察、了解，其对象包括自然界与人类社会两大系列，其最终目的是为了治理，这种治理涵盖了作为个体的人以及由众多个体组合起来的社会。

根据上述分析，笔者以为中国传统的“人文”包含了两个层次的基本内容。第一，“人文”表示的是人自身在生活中创造出来的生存文化；第二，“人文”意味着人类为了能够长远存在而不断探索自然规律，建立、完善社会法则，维护社会秩序与自然秩序。

与肇始于意大利的西方人文主义相比，在中国社会生活背景中形成的“人文”显然具有自身特点。中国先民所谓“人文”并非片面地强调个性张扬，更不是倡导物质利益至上与张扬肉欲满足。中国传统的“人文精神”既承认了人类个体的创造力和创造成果，又主张人格修养与完善，强调社会谐调，强调人类必须从天、地、人的协同关系上来把握个体与整体的生存。这些内容虽然丰富多彩，但归根结底可以用『周易』的『贲』卦关于“山下”有“火”的意象来表征。“火”意味着在广袤的空间中众多个体的绵延创造和丰硕成果；“山”意味着人类的个体生存与整体生存所必须遵循的规则。

三、“大巡”的公事与修道生活的人文底蕴

非常有趣的是，当笔者沿着『周易』所论述的“人文”理路检索韩国大巡真理会的经典文献『典经』时，发现该书关于上帝的“公事”记载不仅蕴藏着『周易』的一系列卦象，而且遵循着一种与『周易』几乎相同的“人文思路”。这一点，从『典经』的“母岳山”论说就可以得到佐证。

『典经』的『公事』篇第三章第六节描述：

上帝在各地举行公事以汲取精气。为汲取和附和江山的精气，先以父母山精气为始行公事。上帝道：“父母山即全州母岳山和淳昌回文山。回文山有二十四穴，其中有五仙围棋形。围棋系唐尧创作，用来教育丹朱。因此，若解丹朱之冤应后始于五仙围棋，开启大运，流转顺畅。其次需综合四明堂之精气。四明堂

者，即指淳昌回文山之五仙围棋形、务安僧达山之胡僧礼佛形、长城巽龙之仙女织锦形、泰仁拜礼田之群臣奉召形。扶安边山有二十四穴，相对应于回文山之二十四穴，在海边呼应海王之度数。回文山为山君，边山为海王。”上帝取精气于此等江山。²⁾

这段文字所言及的“母岳山”、“淳昌回文山”暗示的乃是『艮』卦，因为“艮”的本象即是“山”，『典经』虽不言“艮”，而“艮”就在其中。至于“丹朱”之名则是“火”的隐称。在传统五行学里，五色青、赤、黄、白、黑与木、火、土、金、水相配，“丹朱”即赤色，也就是“火”的颜色，转换为卦象就是『离』卦。上之“山”为『艮』，下之“火”为『离』。『艮』上『离』下，两者组合，不就是『贲』卦吗？

在古史传说中，丹朱是帝尧之子。古谓尧有十子，丹朱是帝尧的嫡长子。丹朱出生的时候全身红彤彤，故而取名“朱”。相传“朱”被封于“丹渊”，后人遂称之为“丹朱”。『太平御览』卷六三引『尚书逸篇』谓：“尧子不肖，舜使居丹渊为诸侯，故号曰丹朱”。『典经』所涉及的“丹朱”当指“帝尧”的嫡长子。据称丹朱聪明颖慧，在其父帝尧教育下，精研棋艺，成为围棋的第一高手。『典经』所谓“五仙围棋”，其源乃出于此。从这个角度看，“丹朱”乃是聪颖大智的象征，或者说是智慧的化身。这一点与『周易』的『贲』卦通过“火”来象征“文明创造”的人文旨趣是一致的。

然而，“丹朱”又是有冤结的。本来，作为帝尧的嫡长子，他是帝位的合理继承人，谁知道事态发生了变化。帝尧所统辖的“酋邦”国家在后期发生严重危机，以“舜”和“益”为首的一些氏族部落首领试图篡夺“尧”的帝位。尤其是“舜”，曾经在帝尧的面前毁谤丹朱，挑拨其父子关系。舜还设法说服帝尧，把丹朱派到离帝尧较远的南边丹水流域做诸侯。『竹书纪年』称，“后稷放帝子朱于丹水”。文中所谓“帝子朱”指的就是“丹朱”，而“放”乃是“流放”的意思，表示丹朱曾经遭受了流放的处罚。这样看来，“丹朱”是蒙冤受屈的。『典经』所谓“解丹朱之冤”

2)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大巡指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第126页。

正是针对这种情形说的。其中的“解”意味着“化解”，也就是要消除历史上所存在的“冤结”，从而达到气运“流转顺畅”的目的。换一句话说， “解丹朱之冤”就是要停止冤仇的继续团结和衍生，以便畅通运气，达到“化成天下”的目标。

由上可见，『典经』关于“母岳山”的论说，体现了典型的“人文象征”手法，其行文通过“山”与“丹朱”的意象，暗示了『艮』卦与『离』卦的奥妙关系，启迪后人以『周易』之『贲』卦为引领，化解人间矛盾，借鉴“围棋”之技艺，来调养心性，完善人格，谐调人神，安顿社会。『典经』这一段论说实在是全书的精髓所在，极为重要，故而不能从眼皮底下轻易溜过，而应该认真揣摩和细细品味之。

当我们明白了『典经』的“人文象征”旨趣之后，就可以进一步探讨“大巡”修道工夫所具有的人文底蕴了。

“大巡”信仰的终极目标是建立地上天国，这个目标的实现是以人格修养为出发点的。通观『典经』与『大巡指针』，不难看出人格修养在大巡宗教信仰体系中占有特别凸显的意义。『大巡指针』认为，人格修养的目标是做一名合格的道人。要达到“合格”两字并非易事，而是需要进行一系列的“修道”功夫。

“修道”之说，发端于春秋之际的老子。司马迁『史记』卷六十三『老庄申韩列传』谓，“老子修道德，其学以自隐无名为务”；又说，老子者，“百有六十余岁，或言二百余岁，以其修道而养寿也”。照此而论，老子之所以高寿，是因为他善于修道。这一点可以在『道德经』中得到印证。该书第五十四章谓：

修之于身，其德乃真；
修之于家，其德乃余；
修之于乡，其德乃长；
修之于邦，其德乃丰；
修之于天下，其德乃普。

老子所谓“修”就是修道。其适用范围很广，但其肇始点却是个人。

通过修养自我，以达其“真”。所谓“真”就是诚朴不欺诈。老子这种思想得到后来道家学派的继承和发扬。例如周代的『文子』卷下『上仁』篇说：“修道而行德，因天地之性。”意思是说：修养大道，实践厚德，这是遵循天地的本性。汉代以来，“修道”成为道教的基本实践，从『列仙传』到『神仙传』，从『抱朴子』到『云笈七籤』，从『上阳子金丹大药』到『长生诠经』，可以找到“修道”的众多论述。由此可以看出，大巡真理会的修道主张并非无源之水、无本之木，而是有悠久文化传统的。

不过，稍作比较，可以看出，大巡真理会是因应了韩国社会历史趋势与现实需要而重新建构“修道”理论的。按照『典经』的启迪以及大巡真理会创立者牛堂(1917-1996)的训示集『大巡指针』，“修道”应该从做一个合格的国民开始。『大巡指针』规定：修道者应该履行国民义务，正确行使国民权利；应该遵守国法，遵行社会道德，贡献于国利民富。这些规定都是从如何成为一个合格国民的角度考虑问题的。

大巡真理会非常注重修道者的品德涵养。『大巡指针』指出，修道者应该谨言慎行，不可以编造谎言；在内心修养方面，大巡真理会倡导修道者必须“诚、敬、信”。所谓“诚”就是敦厚诚朴、老老实实做人；“敬”就是对天地、鬼神、父母、师长永远怀着一种敬仰的心；“信”就是有坚定的信念，言而有信。此外，『大巡指针』还专门陈述了道人应该致力于家庭和睦，要“率先垂范，成为社会的楷模”³⁾；由此可以看出，大巡真理会是把“人道”涵养作为道人基本功夫来考虑的。这一点与传统儒家关于“修身、齐家”的精神相吻合，也与中国道教的“欲修仙道，先修人道”的思想旨趣一致。

众所周知，人具有社会性。如何处理好各种社会关系，这也是现代修道者应该注意的问题。在这方面，『典经』有许多典型事例给人以智慧和启示。例如『公事』篇第二章言及：

上帝以万国苍生之新生活之法，行物货相通之公事。众从徒依上帝之命，半夜到公信家，轮番从水缸中舀出半瓢水来倒入井

3) 『大巡指针』，第13页。

里，又从井里汲出半瓢水倒入缸中。又令其他人在其他的水缸与井水间互舀互倒。4)

在这一段经文里，有矣“众从徒”轮番舀水的描述并非无意义的“游戏”，而是具有很强象征意味的。把水缸里的半瓢水舀出来倒入井里，而后又从井里舀出半瓢水，这从数量上看似乎是均等的，但从实际内涵看却彻底改变了。因为后来倒入缸中的水已经不是原先的水了。“上帝”命“众从徒”来“互舀互倒”缸中与井里的水，其最重要的启示是：缸中的水来源于井里的水，没有井水也就没有缸中水。“众从徒”应该从水的交融过程感悟个体无法离开整体而存在，所以修道者应该融入社会群体生活之中，在社会生活中修道，在社会生活中提升自己的精神境界。

所谓社会生活，其范围相当广泛，涉及各种关系，而最为直接的关系就是邻里关系。如何处理好邻里关系，这被大巡真理会作为修道者必须注意的重要环节。『大巡指针』指出，修道者应该对非道人给予更多关怀，维系与邻居的纽带关系，该书提醒居民住宅区的大巡联络所注意不要影响居民的正常生活，乘车前往参拜，须遵守公共交通秩序，维护社会的有序运作。5)这些规定着眼于日常生活细节，体现了修道工夫是从平时的一举一动开始的。

大巡的修道工夫也讲究“道通”。『大巡指针』谓，“修道的目的在于道通”6)。所谓“道通”就是修道者达到高深阶段所引发的特异能力与精神境界。

“道通”之说最早见于『庄子·齐物论』：“恢恹慵怪，道通为一。”在这两句话中，前一句是说万物千姿百态，形形色色；第二句是说从本性上看万物都是可以通达为一。根据这样的语境，可知『庄子』中的“道通”是个词组，表示“道”的意义在于“通”，且“道”是能“通”的。这个短语的“道”是名词，“通”是动词。后来，『文子』也讲“道通”，该书的『

4) 『典经』，第119页。

5) 『大巡指针』，第15页。

6) 『大巡指针』，第17页。

符言』篇说：“原天命，治心术，理好憎，适情性，即治道通矣。”『文子』讲的“道通”已经由词组转换为名词。所谓“原天命”是说不被祸福所牵缠，“治心术”是说注意控制喜怒情绪，“理好憎”是说对憎恨之类情绪进行梳理；“适情性”是说让性情既能适当抒发又能合理节制。按照『文子』的看法，注意上述三个环节，就能够动静顺理、赏罚不阿，就能够做到不以欲害性，节而有度，这就是适性养生而得“道通”的基本路径。这样看来，『文子』所谓“道通”可以理解作为一种修道的路径、方法，也可以理解作为一种修道工夫和状态。

事实证明：『大巡指针』关于“道通”的理论对于中国道家传统思想是有所借鉴的。不过，稍微对比一下，又能够看到，『大巡指针』讲的“道通”又具有独特内涵和时代特征。这种内涵特征，概括起来一句话，就是具有鲜明的人伦修养特色。第二编第一章第一节『依据所修成就道通』一开始就指出：“修道乃遵行人伦、明道德，有违于此，岂能道通。”⁷⁾在这里，『大巡指针』所强调的是人伦问题，他把“明道德”作为修道的基本功，体现了“以人为本”的思路，这就是最重要的人文底蕴。

四、“大巡”宗旨的人文精神

按照『典经』以及『大巡指针』的论述，大巡真理会不仅要通过修道工夫来达到个体的人格完善，而且要实现广济苍生、辅国安民、建设地上天国的社会理想。由此，形成了“布德教化”的基本主张，并且付诸行动。

大巡真理会“布德教化”的主张是由其基本宗旨所决定的。『典经』把大巡真理会的宗旨概括为：

7) 『大巡指针』，第17页。

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8)

这四句话包含着丰富内涵。它以阴阳哲学为基础，以沟通人神关系、化解冤结和社会矛盾为途径，以达到生命的高度完善和美好境界为最终追求。认真思考大巡宗旨，我们不仅可以看到大巡真理会的深厚思想根基，而且能够发现其关爱生命、关爱社会、关爱自然的人文情怀。

“阴阳合德”的说法最早见于『周易·系辞下』：

子曰：乾坤，其『易』之门邪？乾，阳物也；坤，阴物也。阴阳合德，而刚柔有体。以体天地之撰，以通神明之德。

根据前人的解释，这里的“子”是指儒家圣人孔子。他发问：乾坤是开启『周易』大厦的门户吗？乾，代表阳性的事物；坤，代表阴性的事物。阴与阳，合其德功，刚与柔便能够归其本位。通过阴阳的周转，能够体察天地变化之大数，领悟神明造化的品性。

解释了『周易·系辞下』的这段言辞，我们就能够明白“阴阳合德”的语境。在这里，搞清楚“德”的含义，对于我们领会大巡真理会宗旨的第一句话非常关键。

“德”字在中国上古的甲骨文中，写作“𠄎”，其外围是四通大道，中间是一个眼睛的样子，表示看清楚前进方向，没有困惑或迷误，坚定而坦然地向前迈进。道家宗师老子对传统的“德”的含义予以引申，使之成为大道的能量和功用。老子『道德经』第五十一章说“道生之，德畜之”就是在养育功能的含义上使用“德”这个字。后来，随着社会活动领域的扩展，“德”的意义更为增加，于是被当作“合乎天道”、“自得自在”、“合乎标准”和“适当位置”的一个综合性概念。

根据以上追溯，我们可以把“阴阳合德”理解为：“阴”与“阳”依据天道而各居其位，彼此协调运作。这种思想主张为梳理人的社会关系和

8) 『典经』，第210页。

自我完善奠定了哲学基础，是其人文旨趣得以形成的理论基石。

由“阴阳合德”的哲学思考，进到神与人的关系层面，《典经》进一步提出了“神人调化”的命题。所谓“调化”，即调和而通化；“神人调化”可以理解为神与人感通、调和，共同实施教化大业。其思想渊源可以追溯到《尚书·舜典》的一段论述：

八音克谐，无相夺伦，神人以和。

对于这几句话，中国宋朝的大学者魏了翁在《尚书要义》卷二中解释说：

帝因伯夷所让，随才而任用之。帝呼夔曰：我今命汝典掌乐事，当以《诗》《乐》教训世适长子，使此长子正直而温和，宽弘而庄栗，刚毅而不苛虐，简易而不傲慢。教之《诗》《乐》，所以然者，《诗》言人之志意，歌咏其义，以长其言。《乐》声依此长歌为节。律吕和此长歌，为声八音，皆能和谐，无令相夺，道理如此，则神人以此和矣。夔答舜曰：呜呼，我击其石磬，拊其石磬，诸音莫不和谐，百兽相率而舞，乐之所感如此，是人神既已和矣。⁹⁾

根据《国语》等书的记载，“伯夷”姓姜，相传是炎帝的第十四代孙子，共工的从孙，大约生活于公元前2300年前后。¹⁰⁾“夔”是舜帝的乐官。帝尧时代，伯夷辅政，掌管礼仪，协助帝尧治理部落联盟，很有政绩，尧想禅位于他，伯夷谢绝尧的美意，没有接受“禅让”，于是推荐舜继承帝位。帝舜时正式任命伯夷为“秩宗”，即主掌礼部的官员。文中“伯夷所让”指的就是伯夷让位于舜的事。整段文字的核心议题是以《诗》、《乐》来谐和神人。舜任命夔掌管《诗》、《乐》教化，其出发点虽然是为了教训世适长子，但其实际效果是由于律吕调谐而使神人得以感通和合。这种以《诗》、《乐》感通、谐和神人的传统在中国可谓源

9) 按，本段引文，采用《四库全书》本。

10) 按，司马迁《史记》有《伯夷列传》，所叙述的“伯夷”系孤竹君之子，而《国语》所讲的伯夷系尧舜时期的人，二者不可相混。

远流长。大巡真理会的『典经』所讲的“神人调化”与『尚书』所谓“神人以和”当具有思想传统的关联。

不过，必须看到，『典经』没有直接采用『尚书』的“神人以和”，而用“神人调化”这个命题，则有新的思想内涵。如果说，“神人以和”陈述的是一种律吕调谐的结果，表示的是状态，那么“神人调化”注重的则是过程，表示的是人与神的互动。“调”是双方的，即人与神调，神与人调；神人共调，方能有“化”。所谓“化”者，化育、化生、化解也。因为神与人协调，气场感通，所以万物能够化育而生生不息。

如何“神人调化”呢？从『典经』的大量记载看，这主要是通过一系列具有仪式特征的“工夫”来感通人神，化解灾祸与疑难问题，即使在最为艰难的时期，道主也坚持不懈地行修道工夫。从表现形态看，这种功夫具有特殊的象征意味。例如『典经』的“教运”第二章第四七节言及：

己丑年冬，道主在东莱的摩诃寺一间禅房每日供上二十四碗井华水，定四十九日为一度数行工夫。李光石在大雄宝殿为道主念佛祈愿。临近四十九日，道主对众僧人、侍者道：“可曾仔细端详法堂的佛像？”众人遂急忙前去察看，只见佛像低着头。道主行工夫第四十九日凌晨，禅房上鹤鸣声起。道主命侍者将带有字符的纸张收集起来付之一炬，并将此灰烬撒入寺前溪流。侍者遵嘱而行，只见溪流上现出一道彩虹。¹¹⁾

这段记载看起来非常神奇。其中所见供品“井华水”即早晨第一次汲取的井泉水。中国传统医学认为，井华水甘平无毒，有安神、镇静、清热、助阴等作用。以此上乘井水作为供品，表示人对神佛的虔诚礼敬。至于其中的数字，则与传统的象征手法有关。“二十四”可能代表二十四节气，表示天地气运之行；“四十九”是『周易』“大衍”之用数。『周易·系辞上』称：“大衍之数五十，其用四十有九。”因在行工夫，故取用数，而不取大衍本数。用二十四碗井华水为供品，行工夫四十九日，以及至四十九日数足时进行的烧字符之纸、撒灰烬等仪式都是

11) 『典经』，第223页。

“调”的工夫，而“鹤鸣声”以及彩虹的出现都可以看作“化”的显示。有“调”有“化”，神人同功，宇宙气运为之正常。

从表面看来，调化的工夫是人对神的景仰，但其目的却是在为人类化解灾异，迎祥纳吉，其事态背后所蕴藏的还是“以人为本”的思路，这种思路在“解冤相生”这个环节中体现得更加明显。如果说，“神人调化”旨在理顺人与神的关系，那么“解冤相生”的重点则是理顺人与人之间的关系。之所以要“解冤”，是因为在长期的历史进程中，人与人之间结下了众多的冤仇，这使得宇宙气运不畅，人间通道堵塞。惟有化解冤结，才能恢复宇宙气运的通达，顺畅人间社会的正常交流。显然，这种考虑颇具社会的人文关怀。

关于“冤结”问题，中国早期的制度道教已经有所注意。汉代产生的太平道经典《太平经》有《冤流灾求奇方诀》一篇，作者罗列了旱夭、灾变屈死等诸多情况，指出了如何哭诉天地的适当办法。汉代以后，道教逐渐形成了“解冤”的理念和相关措施仪式。考《正统道藏》，在书名上明确使用“解冤”词组的经典有四种：《太上道君说解冤拔度妙经》《太上三生解冤妙经》《太上说通真高皇解冤经》《元始天尊说东岳化身济生度死拔罪解冤保命玄范诰咒妙经》。这四部经典的第一部收入“洞玄部·本文类”，从其使用“太上道君”的神称来看，大约形成于魏晋南北朝时期；第二部亦收入“洞玄部·本文类”，约产生于隋唐时期；第三部收入万历《续道藏》，其内容与《太上道君说解冤拔度妙经》大致相同，当系唐宋以来的一种科仪改造本。第四部亦收入万历《续道藏》，其撰人不祥，约出于明朝时期。这四部道教经典有一个共同特点，即看到人世间的种种冤结，认为此等冤结会引起阴讼牵连、人鬼牵连，而阴鬼受难，阳世也将受报，所以必须通过诵经忏悔等科仪法度来化解。

对照一下《道藏》中的解冤类经书，可知大巡真理会“解冤”宗旨与中国道教具有一致性。不过，大巡真理会并非只是延续固有的思路和方法，而是在汲取传统思想基础上，从大处把握，从小处着眼，有针对性地化解冤结。

从『典经』到『大巡指针』，都把“解冤”与“相生”联系起来，表现出主动化解矛盾、建立良好社会关系、人神关系的愿望。关于这一点，『典经·公事』第三章第四节有一段话颇耐人寻味：

以此公事，消解自古以来累积之冤，除去一切因冤而生之不祥，实现永远和平。¹²⁾

在这里，『典经』用了“自古以来”的时间引导词，暗示了两个问题：第一，“冤结”是由来已久的，不仅古代有，近现代也有。第二，上帝行“公事”的目的所要消除的乃是人类积累下来的所有冤结。上帝行“公事”为什么主要抓住“冤”的问题？因为这是导致社会不能和平的根本原因，所以居于首要地位，如果把“冤结”化解了，这就能够“牵首而身动”¹³⁾，可以影响全局。这种思想在『典经』所记载的“公事”、“教运”行迹中可以找到大量可资佐证的事例。其中，既有针对国运冤结的公事，也有针对家庭等社会冤结的公事。

当然，『典经』所记载的“解冤”公事，并非只是言说而已，更多的是表现其信仰的最高神姜圣上帝如何以身作则来处理冤结问题，例如『教运』篇第一章写到，姜圣上帝得知东学徒聚会于院坪的情况，即说：“吾将防范类似甲午年之掠民之弊，令一进会的人各用其财，吾将为此率先示范。”于是将家中家什及部分田地变卖后，携钱款前往全州府，将其分给过路的乞丐。此后，会员不再掠夺百姓财物，而以自己的财力开展活动。全州府民们深为上帝之行为所感动，对上帝倍加恭敬。¹⁴⁾

由上述情况可以看出，“解冤”公事反映了大巡真理会关注下层百姓生活，上帝变卖家产，将钱财分发给乞丐，这是实实在在的“以人为本”，确实确实的天下大慈善，其人文关怀不言而喻。

“解冤相生”的落脚点在于“相生”。所谓“相生”，就是社会中的人们

12) 『典经』，第125页。

13) 『典经』，第125页。

14) 『典经』，第151-152页。

处于和谐互利状态，彼此能够相互协作，激发生存的积极能量，而其最终的目标是要合于大道，实现“道通真境”的伟大理想。

“真”在中国上古的金文里，写作“𠄎”，它本是人死的时候裸身埋葬的一种象形写照。对此，『晋书』卷五十一『皇甫谧传』有一段话可为之佐证：

古之葬者，衣之以薪，葬之中野，不封不树，是以死得真，亡不损生。

文中所谓“古”指远古时期。讲述这段话的人是皇甫谧。他生于东汉建安二十年（公元215年），死于西晋太康三年（公元282年），是一位儒道兼修的大医学家。在皇甫谧看来，古时候人死了不过是以柴薪作为衣裳，丢在旷野就算葬了，没有密封，也不树什么碑立什么传，死亡就叫做“得真”，虽然停止了生命活动，但身体完好。从『晋书』上下文的描述可知，皇甫谧这段话是以上古『易经』等资料为依据的，说明“以死得真”的观念并非只是汉晋之际的思想，而是肇始于远古的。

“死亡”，又称作“归真”。林希逸『庄子口义』卷七在解释『庄子·齐物论』的时候说：“以死为反言归真也。”清朝刑部尚书徐乾学撰『读礼通考』卷八十四『裸葬』谓：“尸与土并，反真之理也。”这些例证表明：无论是“归真”还是“反真”实际上都是死亡的含蓄说法。其中的“归”就是复归，“反”是“回返”，把死亡说成复归于“真”，或者回返于“真”，是因为上古的人死了，采取裸葬方式，其深层意蕴是不加装饰，反对奢华，以纯朴的方式对待死者。从这个意义上看，“真”意味着纯朴、求实。

以“死”为“真”的生命文化后来被道家予以意义引申和意境提升。道家理论大师老子、庄子在保留上古时期“真”的纯朴内涵基础上，引申出“本性”、“本原”、“自然”的意蕴，所以道家讲的“返朴归真”也就是回归自然本性、诚实不欺。老子『道德经』第四十一章以“质真”来形容化生万物的“大道”品行。『庄子』提出了“真人”的概念，并且描述了具备真知灼见、能够“入水不濡、入火不焦”、有大神通的真人形象。汉

代以来，道教以修炼成仙为终极目标，以“真人”称呼神仙人物，把真人居处的地方叫做“真境”。例如『云笈七籤』卷六十九『七返灵砂论』谓：“服此‘灵宝神丹’后，自然神灵骨轻，身有光明，足蹈真境，而为上仙也。”宋代道家学者褚伯秀所撰『南华真经义海纂微』卷三十六在解释『庄子·天地』时有“帝乡真境”的描述。这两条例证表明，道教所讲的“真境”就是神仙居处的理想境界。

大巡真理会以“道通真境”为修道布德的最高境界，这种理念可以从老子、庄子一派道家学者所讲的回归纯朴本真的精神找到源头，也与汉晋以来中国道教希望的“真境”不谋而合。

不过，由于所处时代和环境不同，大巡真理会的“真境”学说更有一种社会生活气息。『典经』在概括“目的”的时候指出：

地上神仙实现，人间改造。
地上天国建设，世界开辟。15)

这两句话都把“地上”这个概念放在句首，说明大巡真理会是相当看重现实社会生活的。因为人间就在地上，所以大巡真理会即便主张通过修道成为神仙，也着眼于现实社会。

所谓“人间改造”意味着：化解了冤结之后，人间各种关系理顺，原有的不良状况得以改变，个人品格得以提升和完善，社会和谐有序。随着物质生活水平的提高，人的精神生活也升华到一个美妙境界，纯朴、善良、诚实、互助、慈善，这些人类本有的优良品质得以恢复和发扬光大，人间社会进入一个真正不欺诈的崇高美好状态。与此同时，人们生活的环境排除了污染，自然生态得到充分维护，山水相映成趣，草木生机勃勃，一派盎然景象。

由“地上神仙实现”的状态推而广之，就是“地上天国建设”。如果说，“地上神仙实现”着眼于当下某个区域的人间社会改造和完善，那么“地上天国建设”则是希望全人类都迎来美好状态，这种状态的鲜明

15) 『典经』，第210页。

特征就是“世界开辟”。

“开辟”一词，在中国古代典籍常见使用，例如『国语·越语下』谓：“田野开辟，府仓实，民众殷。”西汉学者扬雄『法言·寡见』称：“如观兵开辟以来，未有秦也。”在古人语境里，“开辟”有“开天辟地”、“开拓创立”和“打开通路”等多种含义。大巡真理会讲的“开辟”，笔者理解为实现“道通”，即实现了地上天国的宏伟目标时，世界各地的人们彼此没有隔阂，都能够很好交流和相互关照。这时候，人们感到生是快乐的，而对于“死”也不恐惧，真正实现了“生死一如”、“高下不分”，人人皆为圣贤，个个成为神仙，进入了“无为而无不为”的真境。这样的美好未来景象，无疑是具有魅力的！

五、结语

从上面的分析可知，大巡真理会并非只是一般的社会团体，而是具有完整信仰体系的宗教组织。该组织不仅具有明确的宗旨、信条和目的，而且形成了独特的修道功夫和处事原则。作为一种宗教信仰的文化结晶，“大巡”经典当然洋溢着神学的氛围，但若深入考察，就会发现其落脚点却是“人”，用『大巡指针』的话来说，这叫做“使人们享受地上乐园之幸福”¹⁶⁾。

尽管大巡真理会的经典没有明确宣示该组织的信仰是“以人为本”，但『大巡指针』则以“人尊思想”（即和平思想）¹⁷⁾作为大巡真理的要义。这种“人尊思想”也就是大巡真理会的人文精神，其直接的功用就是平安利生。

『大巡指针』指出：“宇宙大元真理即为道。”¹⁸⁾依笔者数十年的探

16) 『大巡指针』，第7页。

17) 『大巡指针』，第6页。

18) 『大巡指针』，第8页。

索，“道”的本义就是“安”。在中国上古的金文里，“道”字像一个十字路口埋着一个人头。原来古人打仗，甲乙双方有一方打败了，敌方首脑就被埋在十字路口。先民们相信，人是有灵魂的，死了就必须埋入地中，所谓“入土为安”就是这种观念的体现；另外，收埋敌方首脑还有“镇慑为安”的功用。在古人心目中，道路存在危险，因此必须举行“修祓”宗教仪式，其具体做法就是将异族人首埋于道路交界处，念动咒语，从而产生镇慑保安效果。上古时期这种平安的观念被老子所继承和发挥，老子『道德经』第三十五章谓：“执大象，天下往。往而不害，安平泰。”老子所谓“大象”即“道”，而“执大象”就是信仰大道、奉行大道、固守大道。“天下往”是说圣人奉行大道，天下万物都归向大道。按照『道德经』的说法，天下万物归向大道，这不会受到任何伤害。之所以如此，是因为大道是“安平泰”的。“安”当然是安全，而“平”就是太平，安全与太平合起来就是平安，可见老子讲“道”的要义还是平安。

大巡真理会以宇宙大元真理为“道”，这个“道”与中国道家之“道”一样，也具有“安”的理趣。『典经』与『大巡指针』所确立的信条以“安心”、“安身”为入门的关键，这里的“安心”、“安身”虽然主要是从宁心静气、安顿身心角度着眼的，但也有使自己的身心排除恐惧、得到安全保护的意蕴，故而说到底还是以平安为前提。正是基于“平安需求”，大巡真理会的信仰者们努力修道，希望获得“仙佛儒大道正通”¹⁹⁾，进入“清华五万年龙华仙境，一一同跻之地”²⁰⁾。在这里，『典经』所讲的“大道”也就是“平安之道”，而要创建的“龙华仙境”也就是以“人人平安”、“岁岁平安”、“处处平安”为保障的人间天国胜境。从这个意义来讲，我们可以把大巡真理会看作一种以“人类平安”作为布德方向的信仰组织。笔者相信，这种尊重人类平安基本需求的宗教信仰是有生命力的，一定能够得到世人的欢迎。

19) 『典经』，第211页。

20) 『典经』，第211页。

【参考文献】

- 『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
- 『大巡指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
- 黄寿祺、张善文，『周易译注』，上海古籍出版社，2004年版。
- 清宁子，『老子道德经通解』，北京：宗教文化出版社，2013年修订版。
- 司马迁，『史记』，北京：中华书局，1959年版。
- 孙星衍，『尚书今古文注疏』，北京：中华书局，1986年版。
- 孔颖达，『尚书正义』，上海古籍出版社，1990年版。
- 王先谦，『诗三家义集疏』，北京：中华书局，1987年版。
- 杨伯峻，『春秋左传注』，北京：中华书局，1993年版。
- 孙希旦，『礼记集解』，北京：中华书局，1989年版。

▪국문 요약▪

대순사상의 인문정신과 인류평안의 이념

잔스창(詹石窗)

중국사천대학

대순사상은 인간의 행위와 정신적 틀, 즉 몸과 마음을 닦고 세상을 다스리며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도리를 설파하고 있다. 우주 공간의 질서와 깊은 연관을 맺는 이러한 도리는 인간 자신의 인지(認知)와 심신 수양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람이 사회와 우주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을 인문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서양의 인문주의와 비교해 볼 때, 중국 전통의 인문정신은 인류 개체의 창조력과 그 성과를 인정하고, 인격적 수양과 개선을 주장하며,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편, 인류가 반드시 천지인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개체와 전체의 생존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문정신은 『전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가 모약산과 단주(丹朱)에 대한 서술인데, 모약산은 산 즉 ‘간’(艮)괘이며 단주는 적색에 상응하니 곧 ‘리’(離)괘가 된다. 이 두 괘가 서로 조합하면 ‘비(比)’괘가 되며, 『주역』의 비괘와 연관하여 서로 간의 모순을 없애고, ‘바둑’을 두는 기법을 거울 삼아 심성을 다스리며, 인격을 완성하고, 인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사회를 안정시킬 것을 말한다.

대순 신앙의 최종 목표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격수양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격수양의 목표는 바른 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 공부를 해야만 한다. 수도는 춘추시기 노자 이래로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것이지만, 대순진리회는 한국사회 역사의 경향과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여 수도 이론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대순진리회는 수도자가 ‘성(誠), 경(敬), 신(信)’에 힘쓰는 품격 함양을 매우 중시한다. 또 도인들이 가정의 화목에 힘써야 하며, 술선수범하는 도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대순진리회는 ‘인도’(人道)를 함양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유가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修身, 齊家)의 정신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 또한 중국 도교의 ‘선도(仙道)를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도(人道)를 행하라’는 사상적 취지와도 일치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수도의 최종 목표는 도통이다. 도통은 수도자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지는 특수한 능력과 정신의 경지이다. ‘도통’에 대한 기록은 『장자·제물론』, 『문자』의 「부언편」(符言篇)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순진리회가 말하는 도통은 중국의 도가 전통에 보이는 도통과도 연관되지만 강한 인륜수양(人倫修養)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회가 가지는 중요한 인문적 함의라 하겠다.

대순진리회는 수도 공부로써 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건설의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토대는 대순진리회의 종지 첫 번째인 음양합덕이다. 음양합덕은 대순진리의 인문 취지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는 사상이다. 음양합덕의 철학적 사고는 종지 두 번째인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이상으로 이어진다. 신인조화는 『상서·순전』(尙書·舜典)의 신인이화(神人以和)에서 그 사상적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신인이화가 율려 조화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라면, 신인조화에서 중시하는 것은 ‘과정’이며 인간과 신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며, 그 배후에는 인본(人本)의 사상이 깃들여 있다. 그것은 종지 세 번째인 ‘해원상생’의 내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인조화가 인간

과 신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 해원상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맺힌 원을 풀어 우주의 기운을 잘 통할 수 있게 하고 인간 사회의 정상적인 교류를 이루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인 인문적 관심과 배려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중지 네 번째인 도통진경은 수도의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이념은 노장 일파의 도가 학자들이 말한 순박한 본성으로 회귀하자는 정신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진(漢晉)시대 이래 중국 도교가 추구했던 ‘진경’의 의미와도 합치된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대순진리회의 ‘진경’은 사회생활의 의미까지 내포한다.

비록 대순진리회의 경전이 인본(人本)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대순진리회의 요의(要義) 중 하나인 인존사상은 대순진리회의 인문정신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존사상의 직접적인 기능은 평안(平安)으로서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우주대원의 진리를 ‘도’라 하였는데 이러한 ‘도’는 중국의 도가에서 말하는 ‘도’와 동일하며, 여기에는 ‘안(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순진리회의 신조 중 ‘안심’, ‘안신’은 마음을 정(靜)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심신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어 안전과 보호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결국 평안이 전제가 된다. 이렇듯 대순진리회에서는 ‘평안에 대한 회구’를 근본으로 하여 신앙인들이 열심히 수도에 정진하고 있다. 대순진리회가 인류 평안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반드시 세인들의 환영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제어 : 대순, 인문, 평안

-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3년 11월 18일~22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3년 11월 24일